



오늘의 날씨 | 맑음 | 22℃/34℃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음력 7월 14일)

# 기독일보

석간

구독신청 02-722-8165



www.christiandaily.co.kr

제 1112호

## “기왕 대체복무제 하려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형평성 있는 軍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음선평 교수와 김일성 중장(예)이 발제자로 나섰다. 가운데 고영일 변호사는 사회를 봤다.

조은식 기자

## “형평성 있는 軍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에 대한 포럼

“형평성 있는 軍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14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6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관4(합헌):4(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호 및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던 바 있다.

세미나에서 음선평 교수(홍익대 법대학장, 前한국입법학회회장)는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며 “이러한 한국의 현실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개 조항으로 규정된 것을 생각하면, 통상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음 교수는 지난 6월 28일 헌재의 판단에 대해 “헌재가 보호하고자 한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이며, ‘일체의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내적 확신’이라 설명했다.

음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에 따른 안보약화의 방지,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음 교수는 “한국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해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거부”라고 말하고, “그래서 병역자제의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해,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는 허용하지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중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통상의 군사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복무 기간과 형태, 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봤다.

또 음 교수는 “현행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무관한 교육훈련을 거친 후 민간복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민간복무는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음 교수는 “징병제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단순한 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정작업을 예상하고서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지혜롭다”고 했다. 더불어 “현역복무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거나,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최대한 늘려가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표자였던 김일성 중장(예)前 병무청장, 前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대체복무의 조건에 대해 먼저 “복무 분야는 전시 상황 하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대체할만한 완벽한 복무 분야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복무 기간 면에서 “현역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되, 비 합숙 복무와 합숙복무에 대한 가중치, 예비군 훈련, 전시 소집에 응할 의무, 현역과 전시 병역의무 수월간의 위험도 등에 대한 가중치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양심을 가장한 병역면제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준의 복무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 및 기준을 강조하고,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법적 보완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비군 복무와 전시 병역동원 소집을 대체할 의무부과가 합리적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행사는 자유한국당 軍대체복무특별위원회와 바른軍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함께 공동주최했다.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제 외에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스투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오은혜 대학원생(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김서영 과장(국방부 인력정책과) 권용태 대학생(삼육대 경영학과) 등이 나서서 함께 토론회에 임했다.

조은식 기자



## 남은 시간 속에서 웨딩 사역으로 주님 섬길래요

### [인터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조준희 집사



조준희 집사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질주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이키라”라고 했다. 인생의 정점을 경험한 지혜자 솔로몬의 충고다.

기자는 죽음의 언덕을 가까에서 바라보았던 조준희 집사를 만났다. 암으로 인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며 치료 과정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오는 길이었다. 비교적 좋아지고 있다는 의사의 소식을 듣고 상기된 얼굴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조 집사가 토해내는 삶의 고백들은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노래요 찬양이었다. 죽음의 언덕을 바라본 사람의 여유와 관조가 있었다.

#### ◆성당에서 시작한 신앙생활

조준희 집사는 신실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천주교 모태신앙이다. 아버지는 신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미사에 참석하시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셨고 신앙 안에서 리더십도 있어서 사도회장을 맡아 봉사하기도 하셨다. 이런 아버지는 딸도 신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원했다. 어린 조준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성당 생활을 했다. 다행히 성당 생활이 좋았다. 조준희 집사에게 성당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교리 교육과 신앙 훈련을 통해 신앙생활의 습관화도, 신앙의 기본 개념 숙지도 가능했다. 어느덧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 ◆미국에서 시작한 교회 생활

1981년 1월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에

오자마자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 뉴욕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프라미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후 남가주로 이주하면서 나성서부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정착하면서 만남의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12년 정도 만남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 이민자의 삶이 그러하듯 조준희 집사도 이런 저런 일들을 했다. 그러다가 하게 된 사업이 웨딩 사업이다. 정확히 말하면 종합이벤트 회사였다. 결혼식 준비 및 진행은 물론 모든 모임과 잔치 그리고 행사 일체를 돕는 비즈니스였다. 바쁘다! 문자 그대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렸다. 아주 가끔씩 수요 예배를 드렸고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 생활이었다.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뽀족한 수가 없었다. 너무 바빴다. 그리고 나름의 보람도 있었다. 사업도 잘 되었고 직원들을 돌보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다.

#### ◆죽음의 언덕을 바라보며

조준희 집사는 한동안 일 중독자로 살았다. 과도하게 열심히 살았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쉬고 싶은 마음 굴뚝같았지만 쉬지 못했고 쉬 수가 없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었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삶에 대한 의무감을 갖다보니 더욱 쉬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 왔다. 스스로 생각해도 아픔을 잘 참고 내색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고관절 문제인줄 알았다. 진통제로 다스리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초음파 진단을 하니 임파선 문제였다. 정밀진단이 필요하였지만 정밀진단을 받지 않고 참았다. 통증이 더 심각해지면 근육이완제로 다스렸다.

암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밀진단을 받고 보니 암이었다. 의사들의 권면을 따라 MRI 검사와 조직 검사를 거쳐서 최

종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른 주먹 크기만한 암 덩어리를 발견한 것이다. 걷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양발도 신지 못하고 겨우 Walker로 의지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암 덩어리였던 것이다.

이젠 일을 할 수가 없었다. 2017년 7월 암이 확진된 후에 사업을 그만 두기로 맘을 먹고 건물의 리스 해제를 요청했다. 거부당했다. 2017년 8월 22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다시 리스 해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23일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울음이 터졌다. 좀처럼 울지 않는 조준희 집사는 그날 밤 자동차 안에서 역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며 통곡을 했다. 절망감이 밀려오고 그간 참아왔던 아픔이 통렬하게 전해졌다. 통곡하는 동안 기도가 터졌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있게 해주소서! 좀 쉬 수 있게 해 주소서!” 목놓아 부르짖었다.

8월 24일 아침 식사중에 건물 관리를 하는 매니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8월 말까지 가게를 비워 달라고 했다. 너무 급했다. 재고 정리 등의 시간의 필요했다. 매니저를 통해서 건물주와 협의한 것이 10월말 폐업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것이 쏘박 같았다.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사업장을 정리하며 재고도 정리하고, 부채도 정리하고, 그간의 관계들도 정리하며 인생도 정리하고 있었다. 죽음이 눈앞의 언덕에서 손짓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이젠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가게 정리를 빙자해서 기증을 많이 했다. 우선 웨딩 사업에 주요 품목인 드레스들을 교회와 기관에 증여를 했다.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

남은 시간들을 헤아려 보니 별로 길 것 같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딸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사돈의 권면으로 시작된 일이다.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딸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남겨질 남편의 유익을 위해 결정한 일이다.

죽음의 언덕을 바라보며 기도가 많아지고 예배 참석 횟수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는다. 이상하리만치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종종 드리는 기도가 있다.

“주님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주님! 하

늘나라 가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 5분이면 족했던 기도인데 30분을 훌쩍 넘는 시간을 기도로 채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기도에 담겼다.

#### ◆삶의 끝자락에 다시 만지는 웨딩드레스

조준희 집사는 요즘 다시 웨딩드레스를 만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질리도록 만지고 다들었던 웨딩드레스다. 그러나 지금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드레스를 만진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현재 출석하며 섬기고 있는 만남의교회(이정현 목사)에 헌물했던 드레스가 사역의 도구가 되었다. 웨딩 미션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지도로 조준희 집사의 사역 팀에서 여러 이유로 결혼식을 갖지 못한 부부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배설하려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교회의 비전을 실행하는 것이다. 조준희 집사가 헌물한 드레스와 그의 사업 경험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 ◆비전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과 놀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기자가 비전과 기도 제목을 물었다. 암을 이겨가는 환자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생활을 웃으며 인터뷰를 하던 조준희 집사는 심장을 담은 기도 제목들을 토해냈다. 먼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아울러 남은 날들을 살아갈 길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

맞물려 이어지는 기도가 현재 말은 웨딩 미션을 위한 기도다.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놀고 싶어요!”라고 기도한다. 조 집사는 평생 바쁘게 살았다. 바쁜 삶을 핑계로 예배도 소홀했다. 자연히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죽음의 언덕을 바라보고 나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이 아쉽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놀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근사한 기도와 소망이다. 생활생활 미소를 지으며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빨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남긴 말이 컸기에 땀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신앙인의 고백이라 더욱 강한 울림을 남긴다.



# 한국창조과학회, 금식 기도회 및 여름 워크숍

한국창조과학회가 최근 한국창조과학회 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과 성경변증’이라는 주제로 대전 한남대학교 글로벌센터무어아트홀에서 ‘2018년 금식 기도회 및 하계 워크숍’을 가졌다.

특별히 8월 10일 저녁 시간에는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의 인도로 성경적 창조신앙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다음세대와 한국교회의 부흥과 창조과학회의 사역을 위해 전 회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8월 11일 오전부터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의 예배 인도를 시작으로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박경진 교수의 ‘창조과학과 선교’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무신론적 과학주의에 대항하는 선교의 도구로써 창조과학의 중요성과 선교적 위치를 정립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한국창조과학회가 변증적(apologetic) 사역과 더불어 변혁적(transforming) 사역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어서 기독교 변증학자인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의 ‘창조주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신관과 다양한 종교의 주장들 가운데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변증하는 강연을 하였다. 성경적 하나님만이 창조주의 자격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야 구원이 있음을 변증적인 접근을 통해 회의론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사이버·이단 종교 연구 평론지 ‘현대 종교’ 탁지원 소장의 ‘현 시대의 이단, 사이버 동향과 전략, 그리고 그 대처



한국창조과학회 금식 기도회 및 여름 워크숍을 마치고.

한국창조과학회

방안’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단들의 근황과 심각성을 소개하였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창세기의 왜곡된 해석을 통해 많은 이단이 생겨나는 현실 속에서 창조과학의 역할과 책임을 고찰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포항공과대학교 김경태 교수의 ‘뇌 이해와 영적 반응’이란 제목으로 오늘날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영혼과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를 뇌과학의 최신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비교하였다. 아직 인간의 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시작 단계로서 밝혀진 부분보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은 분야로, 단편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인간에게 영혼과 자유의지가 없다고 단정 짓는 무신론적 입장을 살펴보고, 그 반대 입장의 임상학적 결과를 보인 연구를 소개하며 기독교적 영혼의 문제를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경계하는 과학적 입장을 논하였다.

한편 한국창조과학회가 실시한 기존의 워크숍들이 자연과학 위주였다면, 이번 2018년 워크숍은 창조과학회의 탐구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늘날 학문에 있어서 통

섭이 강조되는 시대에, 창조과학회의 이런 시도는 다양한 영역의 통섭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종합적으로 변증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창조과학회 측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연합하고 협업하여, 학회가 가진 비전대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수호하면서 다음세대를 위한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이 땅에 과학주의적 회의론자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 있게 전파될 기도한다”고 전했다. 조은식 기자

# 민감통 신임 경찰청장 한기연 내방

민감통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예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환담했다.

신임 민감통 청장은 “역대 청장 중에 가장 어려운 숙제를 많이 안고 취임하게 되었는데 국민들을 위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국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총장은 “취임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치안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기에 앞서 억울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면서 “경찰이 상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동감을 표시하면서

“교회 목회현장에서도 교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하물며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그런 자세로 임하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송태섭 목사(공동회장)는 “국민들의 걱정은 늘 안보와 치안에 있다”며

“최근 보수 진보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와중에 기독교는 평화적인 시위를 지양하고 과격 시위를 자제하고 있으나 NAP를 비롯해 최근에 현안에 대해 정부가 소수 인권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총장은 “불법집회가 아닌 이상 그 어떤 집회도 보장하고 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경찰의 임장”이라며

“저는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들에게 첫째 균형, 둘째 안전, 셋째 인권을 꼭 가슴에 새기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는 “시위현장에서 태극기든 촛불이든 모두가 국민인데 정부가 태극기는 탄압하고 촛불은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모두가 같은 국민인데 한쪽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 목사는 이어 “보수 진보 집회가 동시에 열릴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자세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경찰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공정성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집회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 청장은 끝으로 “현재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문제가 임박 과정에 있는데 이것은 경찰로서는 70년 숙원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 국민과 함께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민감통 청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30분간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날 민감통 총장 내방에 경찰청 기독교교회장 정재민 총경과 해회사 김주원 서장이,

한기연에서는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와 공동회장 송태섭 목사,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기획홍보실장 김 훈 장로가 각각 배석했다.

신임 민감통 청장(차인총감)은 경찰대 4기로 서울 송파서장, 경찰청 국민안전 혁신추진TF단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역임했다.

박용국 기자

# 민감통 경찰청장, 한기총 내방

민감통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주원 해화경찰서장, 한기총 여론영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경찰청장이 되신 것을 축하한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잘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

겠다. 그리고 바르고 공정한 경찰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민감통 경찰청장은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인권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있고 무엇보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되어 경찰과 검찰의 오랜 갈등이 사라지고 보다 나은 경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민감통 신임 경찰청장(왼쪽)과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기총

##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간별: 일간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앱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wv.or.kr

월드비전 후원금 계좌번호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후원 계좌로 정기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월과 연지를 후원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이월이 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 전 1회 후원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드비전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전, 교육, 의료 및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 이월후원은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한 꿈을 이루고 한 마을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 “빛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 되기를”

## 한국교회 연합단체 및 각 기관 단체 ‘8.15 광복절’ 성명·논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와 민간교류를 즉각 실천하라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로 남과 북 모두가 이를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날은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분단과 냉전의 씨앗이 심겨진 날이다. 남과 북은 광복 후 지금까지 단독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서로 다른 자리에서 73년 간 ‘냉온탕’을 오가며 미완의 해방을 아프게 살아오고 있다.

올해는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의 6.12 싱가포르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 한반도에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이 불가역적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본회는 남북, 북미 간 합의의행 과정에서 전쟁과 폭력을 일삼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남, 북, 미 정부가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해 가기를 바란다. 지난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본회는 우리 민족이 온전한 광복을 누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자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중단된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력을 조속히 재개하기 바란다.

2.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73년간의 단절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항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

3. 남, 북, 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쌀, 밀가루 등의 품목들은 조속히 해제하기 바란다.

4. 남, 북, 미, 중 당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첫 출발로 종전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언을 즉각 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므로 조속히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5.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선언의 정신인 상호주의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합의사항들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며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

본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기독교연합회】 광복 73주년 메시지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36년간 우리 민족에 드리웠던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우리 민족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암흑기에 등불 역할을 하며 독립, 자주, 구국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에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은 묵숨까지 아낌없이 던져가며 불의에 항거한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때때로 선지자적 사명을 망각하고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순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세계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룬 오늘날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뼈저린 자성의 고백이요, 회복과 상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해나간다는 결단의 선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고 난무하는 조통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8.15 73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모두는 시대적 도전과 시련 앞에 직면해 있습니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

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 침략 역사를 왜곡 미화하고, 독도 영유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패권주의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으며, 미중러 강대국 간의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북핵 폐기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평화 통일의 대로를 나아가기까지는 아직도 숏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평화와 번영의 자랑스런 조국으로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세대를 아우르는 조화와 타협으로 이 땅에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자만에서 벗어나 거듭된 분열을 깊이 회개하고 일치와 연합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시대 앞에 선지자적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이대로 좋아오니” 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스스로 갱신하지 못한다면 종내는 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 남북간의 교류협력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자유 민주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도려내고 싶은 어둠이요, 5천 년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도려내고 싶은 어둠이요, 5천 년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도려내고 싶은 어둠이요, 5천 년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는 묵숨까지 버리며 광복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주권 회복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한 이들, 일본의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숨져간 노동자들과 원폭 희생자들, 전쟁에 강제 동원된 군인들과 군 위안부 피해

자들,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의 남은 뼈한 조각까지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입양으로 조국을 떠난 이름 없는 아이들, 사할린과 하와이와 남미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 이국에서 고난받은 한 생명까지 우리 국민 보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 없는 국민은 없다. 또한 국민 없는 국가도 없다. 정부는 국민의 안녕과 생명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선현들이 그 리도 바라던 자주독립정신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음세대가 건강한 정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정책이나, 인간의 가치를 무너트리는 윤리와 허황된 철학의 회망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힘써 일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여 최근 국무회의가 통과시킨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순전성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개념을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광복 73주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므로 보다 건강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자유 민주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분단된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적대시하며, 분쟁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버리고, 분쟁을 넘어 민족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여 생명의 복음, 삶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웃을 섬기며, 국가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한 자리에 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 광복 73주년,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국론을 통합하며, 온 민족이 서로 일체하고 춤추는 나라가 되게 하는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8.15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고귀한 희생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8.15 광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민족은 자유민주주의를 국헌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1919년 3.1 독립운동 때나, 1950년 6.25 동안 때나

이 땅이 가난과 상상의 눈물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다. 피난 시절에도 자기 거처도 없는 상태에서 천막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운동을 벌였다. 새벽기도운동,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등. 전국 각처에서 구국기도의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었다. IMF, 외환위기, 모든 국가의 어려움에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동참해서 극복해온 나라이다.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2018.4.27.)에서 북한 비핵화와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였으나, 그러나 ‘북핵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북한이 가진 핵무기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온 국민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면서도 100% 신뢰하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3세대에 걸쳐 세습 독재를 강화해온 북한 지도자를 신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터전과 가족과 모든 것을 잃었고, 공산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이 거칠지 않은 지식층이라는 이유로 가족들 앞에서, 또한 온 가족이 무참하게 처형당하는 것 등,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직접 체험한 세대가 국민의 20%가 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일으켜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 가는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이 시대를 책임진 젊은 세대는, 생존한 20%가 겪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넓은 식견과 평화에 대한 소망과,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 낼만한 실력을 갖추어야만 광복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온 국민이 함심하여 IMF를 이겨낸 저력으로 종교, 이념, 지역, 계층을 다 떠나서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의 문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전 사회적 노력,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제73주년 광복절 메시지

광복절은 정말 뜻 깊은 날이다. 36년을 나라를 빼앗기고 좌절과 도탄에 빠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빛을 발한 날이기도 하다. 그 동안 수많은

선조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 날을 위하여 열마나 노력했는가? 그분들이 이 날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서러운 정도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또 다시 6.25전쟁이 발발하고 끝내는 남과 북이 분단되는 새로운 비극을 맞이했다. 그렇지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남과 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남과 북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노력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것 같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때 마음을 합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생각된다.

특히 8.15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국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되기를 바라며,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회자가 목회자다 올 때 한국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며, 목회자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작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세속적 성장이 아닌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등불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의 모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살림을꾸꾸는나비행동】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자.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나라를 세워하자. 우리저레가 강압 무도한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73년이 되는 오늘

살림을꾸꾸는나비행동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영 목사



살림을꾸꾸는나비행동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껏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한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광복의 참다운 뜻을 오늘의 상황에 깊이 되새기고 발전시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혹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실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빠른 기간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전반에 정착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어두운 면과 역작용이 많이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출범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이 일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고 생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이 ‘촛불집회’를 지지한 애국적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에 살뜰나비는 광복7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자유 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체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추구할 가치이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야 할 정신이며 원리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계속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가야 한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현실은 기득권주의에 빠진 ‘갑질’이 성행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람다운 삶을 살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은 사회 기반을 흔들 수 있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2. 적폐청산으로 홀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로부터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엎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정치 보복일 수 있고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졸속 개혁정책이다. 그 결과 또 다시 우리사회는 이념적인 좌우와 노사 및 사회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 및 위화감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내부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통합이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정치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을 이

루려면 뜻과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에 비추어 볼 때 ‘적폐 청산’은 특정 부류의 뜻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여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서로 적대 정책을 버리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화해하자고 약속했다. 뒤이어 6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있은 후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물질 생산 시설을 늘이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계속하여 발전시켜 북핵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날 북한이 보여주었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평화 회담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기 위한 위장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어떤 조치도 아직 취하지 않았는데 정거적인 한미군사훈련 중지, 북한을 향한 군사시설 철수, 대북방송 중단 등의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평화 공세에 빠져들어 국민 전체를 북한의 핵인질로 몰아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평화의 실현은 정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주 국방력 강화라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지나칠 정도로 굴종하고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자주적인 동거리 외교 원칙과 거리가 멀다.

4.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 증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의 나라 세워가자

광복은 단지 우리 겨레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인류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건이다. 인류 보편가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포함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갖고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벗어난 처사다. 또한 양성평등의 성윤리는 인류 보편가치에 속한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 다른 성의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반인륜적 처사이다.

5. 헌법 개정 약속을 이행해야하며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치제를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헌법개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거리이자 주요 논쟁점이 되고 있다. 문대통령도 약속한 바다. 그동안의 헌법이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중식 행정 형태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문 정부는 개헌안을 내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손질하지 않았다. 막상 자기가 집권하니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보다 발전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6.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경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시장 경제는 기업의 창의와 시장 자율에 내맡기고 국가는 보조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장의 이름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하지만 노동시간 제한, 영세업체들의 최저임금차등지급 불가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 손실을 견뎌내지 못해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저임금 노동자는 그나마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기업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시설 투자를 늘리지 않고 고용 인력마저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찾기 못한 청년의 수는 이전 어느 정권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특정계층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세금 정책으로 정작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은 상류층이 아니라 일반 서민이다. 결국 오늘의 경제 상황은 1997년에 겪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이런 경제 정책의 실패는 한 마디로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있고 생산

적인 경제 정책을 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이고 젊은이뿐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와 정부에 대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세상은 하나님에 지으셨고 유지 보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창조질서에 속한다. 이런 창조질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분리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실천하는 터가 된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신에 비추어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슬기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겨레를 위한 기도에도 이어져야 한다.

#### 【한국교회언론】

빛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라  
을 해는 광복(光復) 73주년이

된다. 또 건국 및 정부수립 70주년이 된다. 2천만 동포가 그렇게도 바라던 광복과 건국 및 정부수립이 이뤄졌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번영과 발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광복을 위하여, 1919년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해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이런 정신이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우방국들을 동원하셔서, 마침내 일제 36년 압제에서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이어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호를 출범시킨 역사 위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다.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사건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든지, 혹은 부끄러운 사건이든지 간에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미래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물지마’식 사랑과 일본에 대한 집착적인 미움은, 둘 다 격정스러운 결과를 가져오

지 않을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 베트남의 전 다이 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했으나, 광 주석은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 달라’고 하여,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이는 불행했던 과거사에 몰입하려는 우리 정부에게 한수 훈계가 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국론 분열을 뛰어넘어야 한다. 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고, 전 정권에서 국가의 기밀을 책임지던 네 명의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낸 나라가 되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국민들이 선출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 줄줄이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정치후진국을 자처하는 것이고, 한 때 국민들이 그들을 선택한 일에 대한, 강한 부정이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국민화합차원에서, 정치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적 위상을 위해서도 국격(國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된다. 국민화합을 위하여 힘을 가진 자가 절제할 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다. 이념적으로 나뉘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고, 천기업과 반기업으로 나누고, 국가와 국민의 공간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는 자와 허물러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래서는 국민 통합과 화합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며, 국민이 선출한 통치자가 할 일로써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되, 우리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해쳐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부 스스로 안보 불안 요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한다. 평화는 우리의 무장해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할 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는 올바른 역사관 위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과 국가비전을 제시하여 자랑스러운 조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이며, 사회적으로는 ‘법치주의’가 근간이다. 이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제도권 학교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념적으로 경도된 교육을 경계해야 할뿐더러, 사실(史實)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건실하게 한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이 말한 대로, 정신이 살도록 교육해야지, 정신을 병들게 하는 교육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주변 이웃나라들과의 협력과 이해이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 형성에 있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뿔 수 없는 관계다. 특별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소련과 김일성의 공산침략으로 부터 지켜준 고마운 국가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유일한 동맹국가다.

이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미련하고 도의에 어긋난 일이며, 국익적인 관계에도 좋지 못하다.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국제관계는 모호하고 감성적인 혈통관계를 절대가치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이익과 국제평화와 공동의 선을 위하여, 국제관계의 선한 경쟁과 협력의 시대에, 지혜로운 국제관계를 든든히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광복 73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가 들려져 있다. 이런 과제를 풀어감에 국민의 총화(總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다.

심훈(본명 심대섭)은 조국의 해방을 바라보면서, 이런 바람을 남겼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우리는 73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중하게 얻은 광복을 헛되지 않도록 지키고, 민족 번영과 평화 통일과 세계로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이제 진정한 광복은 북한(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보통의 국가가 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광복 73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및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게 부탁하는 것은 국민들을 ‘편 가르기’로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민적 화합과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다.

당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미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해, 남은 코드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얗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바 디자인 - 보자미 마티스튜디오

출판 | 이리소 | 32쪽 | 비매품 | 100% 친환경 | 100% 재활용 | 100% 친환경 | 100% 친환경 | 100% 친환경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24-7050 **이리소**